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우자조금

04

포커스
2018년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07

자조금 소식
신규
한우 캐릭터 공개

16

미디어 속 한우
폭염 보양에는
한우가 좋겠~소

20

피플
이준규 경상북도청
축산정책과

2018
August

08



CONTENTS

2018. 08 / VOL.154



04



07



08



10



12



14



표지 설명

일러스트 사모 작가

8월 표지는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바닷가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멋진 음악도 들으며 축제 삼매경에 흥뻑 취한 피서객들의 특별한 시간으로 들어간 한우의 다양한 활약상을 표현했습니다. 폭염은 연일 유례가 없는 폭염특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폭염특보 행동요령을 잘 알아두고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우농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포커스

04

2018년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한눈에 보는 자조금 소식

06

소비자·농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조금 소식

07

07 신규 한우 캐릭터 공개

08 '그린플러그드동해2018' 현장을 가다

10 '학생 대상 한우 우수성 정보 제공' 사업 일환,
학생 대상 요리경연대회 개최

12 한우농가 대상 컨설팅사업 운영

14 한우 부위별 동영상 제작

15 블로그 스킨 변경+한우114&한우유명한곳 홈페이지 리뉴얼

미디어 속 한우

16

폭염 보양에는 한우가 좋겠~소

협회 소식

18

18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19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이사회 개최

발행일 2018년 8월 10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로 3길 20-1(서초동)

카피마이화관 2층 홍보·유통부

연락처 Tel.02.522.3606 Fax.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324.6852

피플

이준규 경상북도청 축산정책과

20

독자와 함께 만드는 〈만들이〉 – 독자엽서

25

독자 여러분의 정성에 늘 감사합니다!

농가를 찾아서

김용환 건남축산농장 대표

22

알림마당

26

이달의 한우 행사 소식입니다

한우 시황

7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24

웹진/비즈링 이벤트

27

웹진 소개와 경품 / 휴대전화 컬러링 신청



16



18



19



20



22

네이버에서 ‘한우자조금 웹진’을 검색하세요!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 2명



한우 시육의 지침서
〈한우야 놀자〉 10명



두툼한 한우파티가 버거 속에
〈한우불고기버거〉 10명

푸짐한 선물이 팽팽!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한우자조금〉 웹진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로 한우 응원 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웹진 주소 www.hanwoonews.com

응모기간 2018년 8월 31일(금)까지

당첨자발표 2018년 9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EVENT!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모아주세요!

연말까지 한우자조금 소식지 열두 권을 모아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2018년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자조금 조성액 계획 대비 61.7% 달성 소고기 수입확대 대응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실시

한우자조금은 지난 7월 1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고기 수입확대 대응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2018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와 함께 △2018년 한우자조금 조성 · 운용 실적 △2018년 한우자조금 납입 현황 △부광산업 미수금 소송 관련 추진 보고 △한우산업 발전 관련 ‘연구용역사업’ 추진 △한우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한우 사육두수 조절 사업) 추진 △2018년 평창올림픽 한우고기 공급 추진 현황 △2018년 한우자조금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233억 431만 원 조성 · 63억 253만 원 운용

6월 30일 기준, 2018년 한우자조금 사업 실적 보고에 따르면 자조금 조성액 실적은 계획(377억 7,489만 원) 대비 61.7%(233억 431만 원)를 달성했다.

세부 사항별 조성 실적을 살펴보면 △농가거출금 74억 4,422만 원 △정부보조금 25억 198만 원 △예치금이자 및 기타수익 5,622만 원 △2017년 이월금 133억 189만 원이다.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소비홍보 25억 4,183만 원 △유통구조 2억 1,401만 원 △교육 및 정보제공 8억 8,087만 원 △조사연구 7,842만 원 △수급안정 14억 7,455만 원 △기타 비용(징수수수료) 5억 333만 원 △운영관리비 6억 952만 원 등으로, 계획(246억

8,618만 원) 대비 25.5%(63억 253만)가 집행됐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도지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면서 “아직 운용되지 않은 예산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운용 실적을 늘리며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우자조금 납입 판정 두수 대비 97.9%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자조금 납입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판정 두수 37만 5,239두 중 자조금 납입 두수는 36만 7,196두로(97.9%) 나타났다.

이날 관리위원들은 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민경천 위원장은 “자조금 납입 실적이 미비한 곳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원 출장 등으로 확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최종 기한을 넘기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발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부광산업 미수금 소송 관련 추진 보고 △한우산업 발전 관련 ‘연구용역사업’ 추진 △한우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한우 사육두수 조절 사업) 추진 △2018년 평창올림픽 한우고기 공급 추진 현황 △2018년 한우자조금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해 관리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며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업 운용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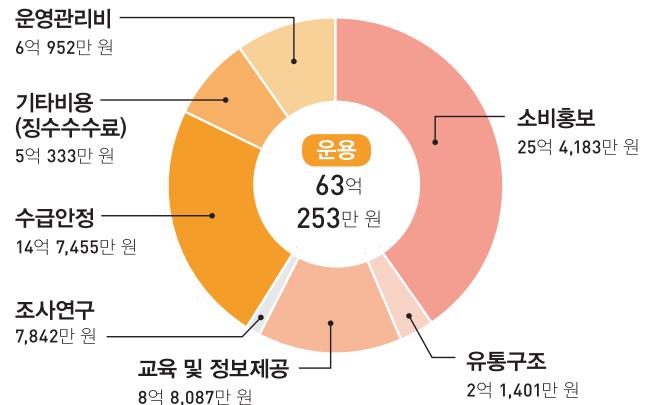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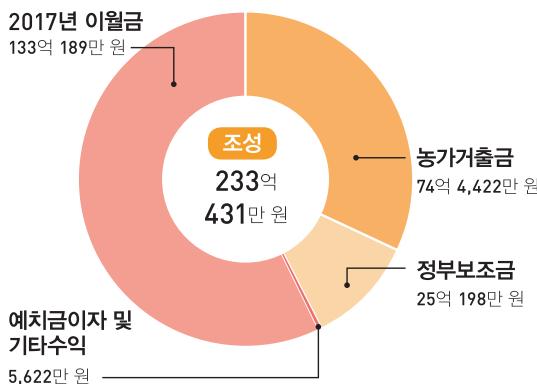
‘2018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 의결 가결

2018년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는 2018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이 상정됐다. 한우자조금 사업 중 소비홍보, 교육·정보 제공, 조사연구, 수급안정 등에 대한 예산 수정안이 제출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입산 소고기의 수입 물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우수성 홍보로 TV·라디오 광고 확대(5억 120만 원) △한우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 홍보 활동 확대(4,000만 원)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지원으로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 정보 제공(1억 원) △한우정책연구소 설치와 운영으로 한우산업 정책 기능 강화(3,400만 원) △한우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단계 수급조절로 과잉생산 예방을 위한 한우 사육두수 조절 사업(40억 원)이다. 증액 예산은 절감예산 전용(1억 8,000만원) 및 예비비(4억 9,520만 원), 수급안정적립금(40억 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관리위원들은 TV 광고를 위한 예산 집행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깊이 논의한 후 사업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긴급 안건으로 발의된 ‘제15회 안동한우 홍보사절 선발대회 지원(1,000만 원)’은 만장일치로 지원 결정됐다. 한편, ‘한우 사육두수 조절 사업’은 대의원회 의결 및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조성 및 운용 실적

6월 30일 기준



2018년 7월은 소비자·농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행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2018 한우고기를 활용한 조리실습 및 레시피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한우로 조리해 본 학생들은 앞으로 한우 소비를 확대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저기방육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우둔살'을 주재료로 활용, 약 80가지의 우둔살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교육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한우농가 컨설팅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우농가 컨설팅사업은 육질개선, 사료비 절감, 사육기간 단축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우농가의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우 부위별 특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우미식회'란 주제로 제작된 한우 부위별 동영상은 안심편, 등심편, 채끝편, 갈비편, 양지편, 목심 · 우둔 · 설도편, 앞다리 · 사태편, 종합편 등 총 8편으로 제작됐습니다.



디자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스킨을 여름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파란색 하늘과 황금빛 해변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여름 · 피서(避暑)'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여름에도 한우 먹고 기운 UP!'이란 카피를 적용했습니다. SNS 콘텐츠도 '여름 · 피서' 주제를 강화했습니다.



PPL(간접광고)

7월에 미디어 속 한우는 여름 보양식으로 사람들의 지친 체력을 끌어 올렸습니다. TV조선<하딩크의 축구의신>에서는 운동 후 체력 보충을 위해 한우로 회식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으며,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에서는 피로회복에 좋은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세대별 요리 등을 소개했습니다. SBS<좋은아침>에서는 한우 사골과 우주, 한우 내장을 여름 보양식으로 소개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BS2TV <생방송아침이 좋다>에서는 한우가 수입 소고기보다 올레인산이 많아 감칠맛이 풍부해 여름 입맛을 돋우고 기력회복에도 좋다는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KBS2TV <생방송아침이 좋다>에서는 뇌를 깨우는 한우 아침밥상 레시피를 소개, 시청자들의 아침밥상을 깨웠습니다.



소비촉진

강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열린 환경캠페인 음악 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동해2018'에 참가했습니다. 한우 시식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로 페스티벌 관람객은 물론이고 피서객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우리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캐릭터

우리 한우를 대표하는 신규 캐릭터 '한우파밀리'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아빠와 엄마 한우는 일상에서 늘 함께한다는 의미로 '하누랑'과 '하누리'로, 아기 한우는 명랑한 송아지의 이미지를 담아 '우랑이'로, 한우 지킴이는 한우농가의 친근하고 든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우등이'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한우파밀리의 활약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CBS표준FM<오후의 향기서영은입니다>에서는 7월에도 청취자들의 사연 속 주인공인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 등에 한우불고기를 증정하는 '사랑은 한우를 타고' 캠페인을 진행, 청취자들에게 한우산업의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자조금 소식

신규 한우 캐릭터 공개

01

하누랑·하누리·우랑이·우등이의 활약 기대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소비자 접점 강화할 것

한우자조금이 지난 7월 10일 우리 한우를 대표하는 신규 캐릭터 ‘한우패밀리’의 이름을 공개하고 캐릭터 알리기에 나섰다. 신규 캐릭터 이름은 △아빠 한우 ‘하누랑’ △엄마 한우 ‘하누리’ △아기 한우 ‘우랑이’ △한우 농가인 한우 지킴이 ‘우등이’이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3월 29일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한우의 친근하고 가족적인 이미지와 농가에서 정성으로 키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캐릭터 ‘한우패밀리’를 선보였다.

한우패밀리는 아빠 한우, 엄마 한우, 아기 한우, 한우 지킴이 이렇게 총 4가지 한우 캐릭터로 구성됐는데, △아빠 한우는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듬직한 한우를 △엄마 한우는 식탁을 책임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한우의 이미지를 캐릭터로 표현했다. △아기 한우는 명랑한 한우로 친한 친구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한우 지킴이는 한우와 늘 함께하며 건강한 한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한우농가의 마음을 캐릭터로 묘사했다.

4월에는 한우패밀리에 잘 어울리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싫어줄 수 있는 신규 캐릭터 이름 공모전을 개최했다. 한우자조금은 “이 공모전으로 한우패밀리 이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신규 이름 공모로 캐릭터에 대한 관심 증대를 도모했다”며 공모전 개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공모전에는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선호도 조사와 한우자조금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10일 한우캐릭터의 최종 이름이 선정됐다. 한우자조금은 아빠 한우와 엄마 한우는 일상에서 함께하는 한우의 의미를 담아 ‘하누랑’과 ‘하누리’로, 아기 한우는 명랑한 송아지의 이미지를 담아 ‘우랑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우 지킴이 ‘우등이’는 한우패밀리 전체를 책임지는 한우농가의 친근하고 든든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한우자조금은 앞으로 한우패밀리를 소비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한우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고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캐릭터를 개발하고 각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한우를 대표하는 신규 캐릭터 ‘한우패밀리’에 애정을 갖고 그 활약상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자조금 소식

'그린플러그드동해2018' 현장을 가다

02

“해변에서 먹으니 ‘한우’ 맛이 두 배 더 좋아요” 여름 휴가철 피서객 입맛 사로잡기 나서

우리 한우가 푸른 동해 바다와 만나 환상의 궁합을 자랑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7월 21일~7월 22일 양일에 걸쳐 강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은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제대로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다. 뜨거운 여름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그린플러그드동해2018’ 현장을 소개한다.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 널리 알려

시원한 바다, 드넓은 백사장을 젊은 열기로 가득 메운 환경캠페인 음악 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동해2018’ 현장.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바닷가에서 피서객들은 해수욕도 즐기고, 멋진 음악도 들으며 축제 삼매경에 빠진 모습이었다. 자고로 흥겨운 잔치 한 마당에는 맛있는 음식이 곁들어져야 제격. 이럴 때 우리 한우가 곁에 있어 반가웠다.

한우자조금은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피서객을 대상으로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그린플러그드동해2018’ 페스티벌에 한우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음악 페스티벌을 찾은 젊은 세대들이 많은 만큼 이들과 소통하며 한우의 맛과 가치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페스티벌이란 점에서 한우가 공익적이며 긍정적 이미지 얻는 데 일조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를간 열린 시식행사를 위해 한우 불고기 40kg, 채끝 10kg 등 넉넉한 양의 한우고기를 준비했고, 한우 푸드트럭을 활용한 한우 불고기와 채끝 시식회는 피서객들의 입맛을 만족시켰다.

또한, 게임도 하고 한우 부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경품도 받아가는 ‘한우다트게임’ 행사는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60만 원(日)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와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 ‘스탬프랠리’ 이벤트는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이날 한우 행사장은 다양한 즐길 거리로 여름 축제의 장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했다.



젊은 세대 입맛도 ‘취향 저격’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오후 5시. 한우 푸드트럭에서 시식행사를 시작하겠다는 안내방송을 하자마자 그 맛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긴 행렬이 이어졌다.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은 가족 단위의 피서객도 있었지만,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인 만큼 망상해수욕장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아울러 요즘 가장 핫하다는 소떡소떡, 퀘사디아 등을 만드는 한우 요리 체험도 인기였는데, 신선하고 맛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우 하면 대부분 불고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메뉴로 활용하니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한우라 그런지 냄새도 안 나고 더 부드럽고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조세희 씨와 남현주 씨는 주변에 많은 먹을거리가 있지만, 역시 우리 입맛에는 한우가 ‘짱!’이라며 엄지를 치켜든다. 물놀이를 하다 출출하던 차에 한우 퀘사디아 한 조각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웠다는 한연준 씨는 “평소에도 한우를 좋아하지만 해변에서 먹으니 그 맛이 두 배는 더 좋은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글로벌한 한우의 매력 “So Great!”

요즘 젊은 세대는 솔직하고 자기표현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다. 이날 이곳에 와서 처음 ‘한우자조금’을 알게 됐다는 김은영 씨는 부스 한 곳에 마련된 배너광고를 보고 한우등급판정제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한우농가 사진전을 보면서 한우 키우는 분들의 노고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부스를 찾은 이해영 씨는 “우리 한우가 품질이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간다”며 “더운 날씨에 한우들이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한우농가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라”는 인사를 남겼다.

“외국 친구들도 한우 맛 있다는 거 잘 알아요.”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를 찾았다는 토니 씨는 이날 처음 맛본 한우 퀘사디아가 파티 핑거푸드로 손색이 없다며, 신선한 레시피를 개발한 것 같다고 칭찬했다. 호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은 한우 특유의 마블링과 고소한 맛이 매력이 있다며 아마 자신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한우를 감별해 낼 것이라며 “Great!”를 연발했다.

풍성한 먹을거리,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한우자조금 in 그린플러그드동해2018’ 현장은 이처럼 젊은 세대 나아가 글로벌 입맛까지 사로잡은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었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피서객을 대상으로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과 가치를 알리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하고,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조금 소식

'학생 대상 한우 우수성 정보 제공' 사업 일환, 학생 대상 요리경연대회 개최

03

미래 셰프들의 한우 요리 경험 확대 한우 소비를 확대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할 것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축산물품질 평가원 경기지원이 주관해 지난 7월 9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2018 한우고기를 활용한 조리실습 및 레시피 경연대회'를 열었다. 한우 경연대회에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2학년 1반과 6반 학생 80명이 참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상돈 경기지원장은 “그동안 많은 학생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이 한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라며 “미래 셰프를 꿈꾸는 조리학도들을 대상으로 한 한우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한우 요리에 도전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90분. 대회에 앞서 위생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진지함이 가득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고, 재료를 씹고 썰고 조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과 손길이 빨라졌다. 이날 대회는 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아직 고등학생임에도 프로 셰프와 같은 실력으로 침착하게 조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 한우 요리경연대회는 미래 셰프들이 한우를 활용하여 요리 경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오늘 한우로 조리해 본 학생들은 앞으로 한우 소비를 확대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참가 학생 중에는 “한우고기로 요리해 보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적지 않았는데, 한 학생은 “한우 하면 구이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요리경연대회의 주재료는 한우 1등급 ‘우둔살’. 두드리고, 잘게 다지고, 얇게 포를 뜯는 등 질긴 우둔살을 부드럽게 요리하기 위한 학생들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 유호선 평가는 “이번 대회는 한우 비선호부위인 저지방육의 소비 활성화 차원”이라며 “한우 비선호 저지방육 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작 레시피를 발굴해 레시피북으로 만들어 레스토랑, 가정, 급식장 등의 현장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리학도의 창의성과 열정 확인

드디어 90분의 시간이 흐르고 약 80가지의 요리가 테이블에 올랐다. ‘우둔살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식탁이 차려졌다.

전국한우협회 박경호 시흥시지부장은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도 참신하고 맛도 훌륭해 우리 조리업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상근 경기지원장은 “과연 이 요리들이 학생들이 만든 것인지 유명 셰프의 작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며 “우리 조리학도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는 각 반에서 1, 2등을 선발한 후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반에서는 박혜진 학생, 6반에서는 김현수 학생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 두 학생의 작품은 맛과 테코레이션, 창의성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박혜진 학생 요리는 당장이라도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현수 학생은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란 점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1위는 너비아니와 7절판을 만든 박혜진 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한우 우수성 교육’과 ‘등급 및 이력제도 현황 교육’ 등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경호 시흥시지부장은 “우리 조리학도들이 앞으로 훌륭한 셰프가 돼 멋진 레시피로 우리 한우고기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그 맛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1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상근 경기지원장 2 김현수 학생
3 박혜진 학생 4 전국한우협회 박경호 시흥시지부장
5 한국조리과학교 고승정 선생님

Q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김현수 학생**(이하 김현수) : 결과가 잘 나와서 뿌듯해요. 한우 우둔살의 특성을 더 잘 알게 돼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 **박혜진 학생**(이하 박혜진) : 사실 수상보다는 ‘맛있게 만들자’란 마음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뻐요.

Q 오늘 요리 콘셉트를 설명해주세요.

- **김현수** :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너비아니와 7절판 요리를 접목했어요. 7절판은 원래 다양한 채소를 밀전병에 싸서 먹는 음식인데, 밀전병 대신 우둔살을 너비아니로 만들어서 채소 등을 싸 먹게 응용했습니다.
- **박혜진** : 우둔살을 얇게 포를 떠서 마리네이드 한 후 양파, 당근, 새송이, 노란 파프리카 등의 채소를 채 썰어 넣고 롤처럼 말아 미뤘 레어로 구워어요. 채소를 접시에 담은 후 조리한 고기를 올리고 드레싱을 뿌렸습니다.

Q 오늘 우둔살로 요리해 본 소감은 어떤가요?

- **김현수 · 박혜진** : 우둔살은 질긴 부위라고 하는데, 오늘 요리경연대회에서 우둔살을 썰어보고, 구워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우둔살도 요리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둔살이 질기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다음에는 다른 요리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Q 앞으로 한우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은 요리가 있나요?

- **김현수** : 다른 여러 부위로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우 부위별 특색이 무엇이고 조리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혜진** : 등심, 안심하면 스테이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한식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등심, 안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식을 만들고 싶어요.

Q 앞으로 어떤 셰프가 되고 싶나요?

- **김현수** : 더 많이 배우고 경험도 쌓아서 저소득층을 위한 요리를 개발하는 일에 힘쓰고 싶어요.
- **박혜진** : 전공이 제과제빵이지만, 한식 · 양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식을 모두 잘하는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자 조 금 소 식

한우농가 대상 컨설팅사업 운영

04

농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진행
현장 중심 교육·컨설팅 더욱 많아져야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 경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한우 고급육 생산 등 한우산업의 차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농가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 컨설팅사업은 육질개선, 사료비 절감, 사육기간 단축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우농가의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컨설팅 시스템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진행

컨설턴트 :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는데 환풍기 방향이 그 반대로 돼 있어요.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한우농가 : 그런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올 때도 있어요.컨설턴트 : 그러면…

지난 7월 16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한우농가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날은 두 농가에 대한 방문 컨설팅이 이뤄졌고, 각 농가는 2회차 컨설팅을 받는 날이었다.

한우농가 컨설팅사업은 농가당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에서는 컨설팅 방향을 잡기 위해 한우농가 현황과 농가 운영 사항, 농가별 취약 부분 등을 점검하는 기초조사가 이뤄지며, 8회차에서는 2~7회차까지 진행된 중점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 최종점검과 보고가 이뤄진다.〈표1 참고〉

한우농가 컨설팅사업은 현장 밀착형으로 농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즉 경영관리, 질병수의관리, 변식관리, 개량관리, 비육관리,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중 한우농가의 특징, 사양관리 방법, 취약 부분 등에 따라 분야별 전문컨설턴트가 방문해 컨설팅과 스타디그룹을 진행한다. 이날 방문한 두 농가는 일관사육이 이뤄지는 곳으로 축사환경과 변식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우선 환기 시설, 급이·급수 시설 등 축사 내·외부 시설 등 환경에 대한 컨설팅이



〈표1〉 한우농가 컨설팅사업 진행 과정

1회차	2회~7회차	8회차
농가분석 및 컨설팅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점검 및 분석을 위한 컨설턴트 인원 구성 · 분야별 컨설턴트의 농가 현황 및 운영 사항 점검 · 농가별 취약 부분 도출 	분야별 중점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점검 결과에 따른 분야별 중점 컨설팅 실시 · 농가 필요 시 초음파 진단 진행 · 스터디그룹 교육 진행 	종합 컨설팅 실시 및 최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컨설팅 진행 사항에 따른 최종 점검 실시 · 컨설팅 진행내용에 대한 재교육 및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 분석



진행됐다. 바람의 방향을 점검해 환풍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물의 염도와 경도가 한우에게 적합한 정도인지, 급수 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등을 살폈다. “수조통 청소는 매일 해 주고, 여기 안 쪽도 다 뜯어서 닦아줘야 해요. 그러면 한우가 물을 안 먹어요.”

다음으로 조사료의 수분량 등을 점검한 후 한우의 사육 기간과 체중에 따라 조사료와 사료를 어떤 비율로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조사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언이 이뤄졌다. 이날 컨설팅 현장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순간은 한우의 체중을 점검할

때였다. 컨설턴트가 직접 우방에 들어가 한우의 흉위, 십자부고 등을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우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한우를 자동목걸이로 고정시켰지만 한우의 몸놀림에 컨설턴트가 땀을 비 오듯 흘렸다. 이렇게 알아낸 한우의 체중과 체구를 바탕으로 가임 시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컨설턴트와 농장 대표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이날 컨설팅을 받은 김동희 대표는 “앞으로 컨설팅 받은 그대로 실천하겠다”며 컨설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우사 한 쪽에 환풍기 설치 여부를 두고 고민했다는 강홍우 대표는 “컨설팅을 받고 환풍기를 설치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컨설팅을 진행한 손근남 박사는 “소고기 수입관세 완전 폐지 등의 파고가 몰려와도 우리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굳건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와 마음과 마음으로 교감하는 컨설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중심 교육 더 많이 이뤄져야

농가 컨설팅 후에는 주변 한우농가 농장주를 대상으로 한 스터디그룹도 운영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지역별 한우농가 지식 공유와 일체감 조성을 위해 스터디그룹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터디그룹은 컨설팅 2회차부터 7회차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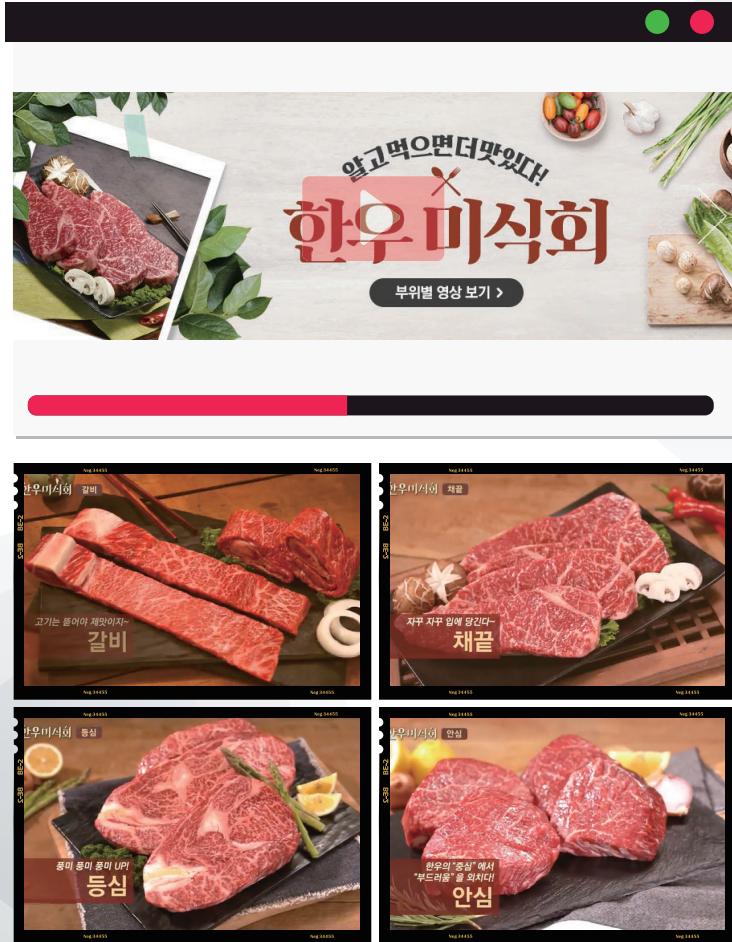
이날 스터디그룹에 참석한 김진택 씨는 “농장에서 직접 스터디그룹이 이루어지니까 생동감이 있고 좋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현실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자조금 소식

05

한우 부위별 동영상 제작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동영상 시대 소비자와의 접점 강화



*한우자조금, 한우114 홈페이지와 한우자조금 유튜브(www.youtube.com/lovehanwoo)에서 만날 수 있다.

‘비디오 퍼스트! 동영상의 시대’!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리서치 업체 오픈서베이가 지난 5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하루 평균 시청하는 동영상의 개수는 2016년 4.1개, 2017년 4.5개, 2018년 4.7개 등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도 2016년 38.1분, 2017년 44.3분, 2018년 45.9분으로 늘었다. 한우자조금이 한우 부위별 특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 동영상 시청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한우미식회’란 주제로 제작된 한우 부위별 동영상은 안심편, 등심편, 채끝편, 갈비편, 양지편, 목심·우둔·설도편, 앞다리·사태편, 종합편 등 총 8편으로 제작됐다.

동영상에는 한우 부위별 특성, 부위별 맛과 향, 부위의 위치, 부위를 활용한 요리법, 부위 이름의 유래, 좋은 한우를 잘 고르는 방법, 한우 육질 등급, 한우의 영양학적 가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영상 길이는 부위별로 평균 1분 30초~2분가량이며, 2~3부위를 묶어서 만든 동영상과 종합편은 이보다 길게 제작됐다. 길지 않은 동영상이지만 부위별 특성을 제대로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여기에 성우의 맛깔나는 내레이션이 더해져 생생한 정보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풍미 풍미 풍미 UP 등심’, ‘한우의 ‘중심’에서 ‘부드러움’을 외치다 안심’, ‘자꾸 자꾸 입에 당긴다 채끝’,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지 갈비’ 등 각 부위에 꼭 맞는 카피를 넣어 부위별 특성을 빨리 인지하고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를 ‘내 손으로 안전하게 고르는 것·내 입으로 맛있게 먹는 것·내 몸으로 재미있게 즐기는 것’은 한우를 조금만 알면 가능하다는 주제로 한우 부위별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소비자들이 한우를 제대로 알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우 부위별 동영상은 ‘한우11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우자조금 유튜브’(www.youtube.com/lovehanwoo)에서도 만날 수 있다. ☺

자 조 금 소 식

06

블로그 스킨 변경+한우114&한우유명한곳 홈페이지 리뉴얼

여름옷으로 갈아입고 네티즌과 시원하게 소통 피서마케팅으로 방문객 유입 업(UP)

한우자조금이 계절마케팅으로
네티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의 스킨을 여름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파란색
하늘과 황금빛 해변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여름·피서(避暑)'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여름에도 한우 먹고 기운 UP!'이란
카피를 적용해 '여름 보양식=한우'라는
의미를 더하며 소비촉진에도 도움을
줬다. 2018년 한우 홍보대사인 배우
한혜진 씨의 사진을 활용해 스킨에 대한
주목도도 높였다. 새로 디자인한 스킨은
한우자조금 블로그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렇게
'한우자조금 SNS'에 통일감을 줌으로써
네티즌들이 한우자조금 SNS란 점을 보다
빨리 인지하게 만들었다.
SNS 콘텐츠도 '여름·피서' 주제를
강화했다. '가볼 만한 해수욕장과 한우
맛집, 무더위에 즐기는 실내데이트와
한우 맛집, 한혜진이 추천하는 더위
피하기 좋은 장소와 한우 맛집, 장마철에
잘 어울리는 한우 음식 BEST 4' 등 한우,
한우 맛집 등과 관련한 여름 콘텐츠는
물론 '무더운 여름 계곡으로 떠나자,
여름철 음식물 관리 Tip' 등 여름에
관심이 높아지는 콘텐츠로 SNS 방문객
유입 효과를 높였다. 한우자조금은
"앞으로도 계절에 적합한 SNS 운영으로



한우 소비촉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한우114'와 '한우유명한곳' 홈페이지 리뉴얼을 10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리뉴얼에서 한우114 홈페이지 메인에는 '우리한우판매점' 메뉴를, 한우유명한곳 홈페이지 메인에는 '우리한우판매몰' 메뉴를 신규로 배치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한우판매인증점의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한우 판매 전문 브랜드 몰에 대한 홍보와 구매 유도 등의 효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우자조금은 "온라인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은 물론 PC와 모바일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우의 우수성을 더욱 잘 알릴 수 있고 한우 소비촉진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폭염 보양에는 한우가 좋겠~소



TV조선<하딩크의 축구의신> 7월 1일 방송



무더위에 지친 몸 한우로 지키겠~소!

비타민, 미네랄, 양질의 단백질 등 영양이 풍부한 한우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소식은 무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한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한우의 맛있는 맛의 비결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은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도 소개하며 한우 소비촉진에도 기여했다. 우둔살, 등심, 앞다리살 등을 활용한 세대별 요리와 각 부위에 대한 설명은 한우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품질 좋은 한우를 고르는 비법을 소개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축산물이력제'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SBS <좋은아침> 7월 10일 방송



보양에는 역시 한우! 한우가 여름 사냥에 나섰다.

한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감칠맛이 인방에 생생하게 전달됐다.

여러 한우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한우 요리는 무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한우=여름 보양식'이란 공식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여름, TV 속에서 건강한 활약이 돋보였던

'보양' 한우를 따라가 봤다.



한우면 제대로 힘 날듯!

유럽리그 진출을 꿈꾸는 최후 7인의 선수들이 한우로 회식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오늘 운동하느라 체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몸보신 제대로 해야겠어, 원기보충 좀 해야겠다, 소고기가 단백질과 칼슘 보충에 최고지, 그냥 고기도 아니고 한우면 제대로 힘 날듯" 등의 선수들 대화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한우가 체력 보충에 좋은 보양식'이란 점을 제대로 알리는 데 일조했다.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7월 3일 방송



밤 깨먹은 자리는 있어도 소 잡아먹은 자리는 없다!

더위로 지친 몸을 재충전해 주는 보양식품으로 한우 사골과 우족, 한우 내장이 소개됐다. 사골과 우족, 천연·간·곱창 등 한우 내장 부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설명한 이 날 방송은 '한우 부속=보양식'이란 새로운 보양 공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며, 한우 부속물의 소비촉진을 도왔다. '밤 깨먹은 자리는 있어도 소 잡아먹은 자리는 없다'는 말처럼, 내장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한우는 수입산보다 피로회복을 돋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는 전문의의 설명은 한우 부속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이날 출연진들이 한우 사골과 내장으로 만든 요리를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집 나간 입맛을 사로잡았다.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7월 16일 방송



한우야 여름을 부탁해!

닥터셰프 황인철씨가 초복을 맞아 '한우유명한곳' 앱으로 한우판매점을 찾아가는 장면이 방송됐다. 평일 낮에도 문전성시를 이룬 한우판매점에서 만난 행복한 손님들의 모습은 한우의 맛있는 맛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충분했다. 2018년 한우자조금 자문단인 최창본 교수의 논문과 설명을 인용해 수입 소고기보다 율레인산이 많은 한우는 감칠맛이 풍부해 여름철 입맛을 돋우고 기력회복에도 좋다는 내용을 전달, 시청자들에게 한우가 보양식으로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우 사태와 얄갈이로 만든 이열치열 보양식 '한우국밥'과 우둔살과 과일, 채소로 만든 이열치한 보양식 '한우과일물회' 요리법 소개 장면이 차례로 방영됐는데, 한우 보양식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을 알려주는 유익한 내용이었다.

한우 아침밥으로 뇌를 깨우세요!

이날 방송에서는 아침에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을 주는 한우를 활용한 아침밥 레시피를 소개하며 한우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은 중학생 딸을 위한 아빠의 한우 아침밥상으로 '한우더덕가지밥'과 '한우토마토사골굴라시' 요리법이 소개됐다. "한우의 필수아미노산이 아이들 성장기에 좋다. 한우 단백질과 탄수화물인 쌀을 함께 먹어야 시너지를 발휘한다" 등의 닥터셰프의 설명은 한우 아침밥상의 우수성을 일깨우기 충분했다. 한우사골 국물에 뼈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는 한우자조금 연구논문 인용 내용과 사골 국물이 기력회복에 좋다는 전문가의 설명은 한우 아침밥상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신뢰를 더했다. 이렇게 완성한 아침밥을 맛있게 먹는 딸의 모습은 시청자들을 아침밥상으로 불러모았다.

CBS표준 FM <오후의향기 서영은입니다> 7월 1일~31일 방송



한우의 뜨거운 사랑 이대로 쭉~

7월에도 한우는 청취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했다. 청취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사연의 주인공에게 10만 한우농가의 정성을 담은 한우 불고기를 증정하는 '사랑은 한우를 신고' 캠페인은 청취자들과 주파수를 맞추며, 한우산업에 대해 따뜻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라디오에서는 '10만 한우농가에서 한우 불고기를 드립니다'란 협찬 멘트가 고지되고 있다.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7월 30일 방송



8월 한우자조금 TV · 라디오 광고 스케줄



채널	편성명	시작시간	요일
	일일드라마 前	20:25	금 (3일·17일·31일)
	한국인의 밥상(재방) 前	17:40	토 (11일·25일)
KBS1	6시내고향 前	18:00	화·금 (7일·10일·14일·28일)
	6시내고향 後	19:00	수 (8일·15일·22일·29일)
	KBS 뉴스 後	12:00	월 (6일·20일)
CBS FM (표준)	김현정의 뉴스쇼 後	08:34	월~금 (총 23회)
CBS FM (음악)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15:58	월~일 (8월 1일~8월 15일·총 15회)

*위 내용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행정 절실

협회 소식

01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을 지난 7월 24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먼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 없는 동일 사안 지자체 공통적용 △관련 법령 허용범위 지자체 권고 △관계부처 유관해석 탄력적 운영 △선별적 적법화 허가 등 35개 사안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난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우리 축산인들은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40℃에 가까운

찜통더위 속에 우리 축산인들은 또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게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홍길 회장은 “지금처럼 농업에 관심이 없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축산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축산인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에 관심을 두고 축산인들이 마음 편하게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9월 중으로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축산인을 말살하는 정책만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이사회 개최

협 회 소 식

OEM 사료 사업 추진으로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02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우산업의 안정과 농가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OEM 사료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 도지회와 연계해 진행하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농협사료를 비롯한 민간 배합사료 업계에서는 한우농가들이 요구하는 원가 공개에 지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OEM 사료를 출시하면 사료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에 따른 가격연동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7월 중으로 OEM 사료 생산업체를 공고하고,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전국한우협회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면 50만~60만 원 상당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군지부의 자율적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군지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우정책연구소 설치 계획도 발표됐다.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변화를 자세히 점검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와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영 예산을 더 늘려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 외에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은 창립일인 9월 14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한우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





‘한우개량’의 매카 한우 고급육 시장의 중심에 서다

경상북도 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3.2%로, 전국 평균(72.1%)을 상회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자랑하는 경상북도의 1등급 출현율이 2006년까지만 해도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결과는 다른 도보다 앞서서 수정란이식사업, 등록비자원사업, 한우개량번식단지육성사업 등의 다양한 한우개량 사업을 꾸준히 실행해 온 덕분이다. 앞으로도 한우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경상북도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경북도청을 찾았다.

Q 경상북도 한우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A 경상북도(이하, 경북) 한우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탄탄한 사육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 농가(2만 97호 · 전국 22%)가 가장 많은 한우(62만 350두 · 전국 22%)를 사육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우농가 당 평균 사육두수는 약 30두이며, 소규모 한우농가를 제외하면 50두~100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바탕으로 의성마늘소, 봉화한약우 등과 같은 지역별 독창적인 브랜드를 개발해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는 ‘참풀한우’라는 경북 광역 한우브랜드로 경북 한우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한우생산기반확충, 한우개량, 광역한우브랜드활성화, 미래축산기반조성 등의 사업에 총 3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 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Q 경북은 다른 도보다 비육 기반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A 우리 도는 비육과 일관사육의 비율이 6:4 정도입니다. (최근 송아지값 상승으로 특히 비육 농가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송아지값이 올라도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농가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우농가에 당부할 수 있는 것이 송아지 입식을 자제해 달라는 것뿐이란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일관사육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경북도 한우농가의 일관사육을 유도하고 있는데, 한우농가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Q 한우농가를 위한 경북만의 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A 지난 2010년~2011년에 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한우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송아지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했고, ‘송아지수급기지조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우량송아지비육시설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2011년 10월 한우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 이후에는 수정란이식사업, 등록비지원사업 등 한우개량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한우개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1등급 한우 출현율이 2010년 62.9%에서 2018년 현재 73.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우농가의 소득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개량암소 확보를 위해 ‘한우개량번식단지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협에서 한우농가의 개체 기록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3개 축협에서 참여했지만 지금은 5개 축협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개 축협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암소가 처음 3만 두에서 지금은 7만 두까지 늘었습니다.

Q 경북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경북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A 우리 도에서는 한우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각종 기자재지원사업을 통폐합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최근 영주한우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영주셀프한우문학경기장점’ 개점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소비시장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2019년에는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판매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상단계이지만, 경북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사육노하우, 개량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남북경협사업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거세장려금지원사업’도 어필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우의 평균 출하 연령은 32개월~33개월인데, 이를 28개월로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세장려금’을 지원해 송아지의 거세 연령을 당기자는 것인데, 이는 예산문제로 지방 정부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건의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Q 경북 한우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우선 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역 활동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각종 예방접종 등으로 차단방역을 꼼꼼히 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과도 연결되는 한우개량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체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우농가에서는 도체성적뿐만 아니라 출생일자, 생식체중, 인공수정일시 등 사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기록·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Q 앞으로 경북 한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공무를 수행할 계획인가요?

A 앞으로 암소능력검정사업 외 수정란이식사업, DNA유전형질 분석 등의 한우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를 절감해 한우 사육기반 안정 도모, 일회성 사업보다는 광역한우브랜드 활성화, 송아지생산안정제, 우량송아지수급기지 등 경북 한우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와의 상호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장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행정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 한우산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김용환 건남축산농장 대표

본격적인 한우농장 운영 ‘인생2막’을 열다

경북 청송에서 과수원과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건남축산농장 김용환 대표는 약 3년 전부터는 한우농장 운영에 더욱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복합영농을 영위하겠지만, 결국은 한우농장 운영이 김용환 대표의 ‘인생2막’이 될 것이다. ‘한우를 키우고 싶다’는 그의 오랜 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늘 오늘 행복했다’는 김용환 대표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늘 오늘 행복할 것’이다.



“한우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을 소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우를 키운다는 것이 그때는 쉽지 않았다. 산골짜기까지 사료를 들여오기가 어려웠고, 그러면 꿀을 직접 베어다가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결국 젊은 시절 김용환 대표는 한우농가가 아닌 ‘포항제철’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한우를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채로.

‘한우를 키워보겠다.’ 결혼 후 김 대표는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한우’였다. 언제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내는 김 대표의 뚝심을 잘 아는 김 대표의 아내도 흔쾌히 지지했다. 1988년 김 대표는 드디어 한우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한우농장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던 김 대표는 용달차를 운전하고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한우 한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고, 조금씩 조금씩 사육두수를 늘렸다.

약 17년 전부터는 용달차 운전과 방앗간 운영을 그만두고 과수원을 시작했는데, 역시 김 대표 옆에는 한우가 있었다. 물론 그 전보다 사육두수는 늘어나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 한우를 40두에서 80두까지 늘렸습니다. 그때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30만~40만 원 정도였고, 기회라고 생각했죠. 물론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웃음) 그 후에도 몇 번의 파고를 만났지만, 김 대표는 그 파고를 큰 어려움 없이 넘었다. “한우 가격이 내려가도 과수원 운영으로 충당이 되니까, 큰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복합영농의 장점이었다.

인생2막은 한우와 함께

“그동안은 여건이 안 됐는데, 3년 전 축사 신축 허가가 나면서 한우를 본격적으로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우농장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인생2막은 한우농장과 함께할 것입니다.”

약 17년간 복합영농을 해 오던 김 대표는 3년 전부터는 한우농장에 더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축사를 신축했고, 3년 전 약 70두였던 한우는 현재 270두까지 늘렸다. 지게차 등 한우 관리에 필요한 기자재도 들였다.

그동안 변식우를 키워온 김 대표는 ‘비육우’로 전환했다.



자가수정을 할 정도로 번식우 사양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갖추고 있는 김 대표지만 그동안 번식우를 키워오면서 몇 번의 어려움을 경험한 까닭이다.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한우에게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지금처럼 과수원도 운영할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사양관리가 어렵지 않은 비육우를 선택했습니다.”

비육우 사양관리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작은 알아야 할 것이 많으니까 축협 등의 컨설팅을 받으며 그대로 사양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 김 대표만의 비육우 사양관리 비법도 쌓였다. 김 대표는 축사에 한우가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벗짚을 깔아 놓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료를 많이 주면 나중에 한우를 출하할 때 즈음 한우가 사료를 먹지 않아 체중을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벗짚을 쥐서 배통을 키우면 출하 시기가 돼도 한우가 사료를 잘 먹습니다.”

초심자의 열정도 대단하다. 하루 세 번 축사를 꼭 둘러보며 한우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김 대표가 신경 쓰는 것은 축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김 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축사를 관리하는지는 뾰송뾰송한 우방에 편히 앉아 있는

한우만 봐도 잘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축사 신축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우처럼 뚝심있게

“우리 아저씨는 일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뛰든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김 대표를 옆에서 지켜본 김 대표 아내의 말처럼, 김 대표는 평생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왔다. 보통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김 대표의 일과는 저녁 10시가 돼야 마감된다. 지난해 축사를 짓고는 더욱 바빠졌는데, 취재팀이 찾은 날도 김 대표는 한우 83두를 거세하느라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도 그럴 예정이었다.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까, (체력과 건강은) 괜찮습니다.”(웃음) 김 대표는 뚝심도 강한 사람이다. 한우 시장을 둘러싼 소문에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왔다. “장기간 한우를 키울 것이기 때문에 루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그저 한우와 오래오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7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7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7월 1일~7월 26일까지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대비(%)	
				6월(A)	7월(B)	6월(C)	7월(D)	C/A	D/B
도축두수(두)	883,569	737,474	742,536	54,793	45,121	51,441	47,732	△6.1	5.8
경매두수(두)	469,935	395,253	401,591	29,653	25,315	28,141	27,164	△5.1	7.3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6,284	18,116	16,719	16,572	16,547	18,195	17,529	9.8
	거세우	16,855	18,941	17,710	18,104	18,079	19,651	19,011	8.5
	비거세우	13,150	15,263	12,108	11,686	11,011	12,803	12,030	9.6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암소	5,148	5,809	5,404	5,330	5,271	5,608	5,559	5.2
	송아지	암	2,374	2,902	2,919	3,105	3,056	3,251	4.7
		수	2,925	3,583	3,572	3,917	3,880	4,128	5.4
불고기(1등급/kg)	37,397	45,755	46,219	45,755	46,757	41,946	43,274	△8.3	△7.4
등심(1등급/kg)	69,924	78,683	79,663	77,813	79,081	79,531	80,765	2.2	2.1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 제외 가격

7월 한우육질 등급별 도매가격

*7월 1일~7월 26일까지 기준

등급	거세	암소	수소	평균
1++	21,148	21,806	-	21,240
1+	19,513	19,175	-	19,429
1	18,021	17,384	17,424	17,702
2	15,855	14,370	14,445	14,752
3	11,730	11,425	11,364	11,432

*단위 : 원/kg

바로 잡습니다!

지난 6월호 '한우시황' 기사에 실린 내용 일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심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대비(%)	
				5월(A)	6월(B)	5월(C)	6월(D)	C/A	D/B				
도축두수(두)	883,569	737,474	742,536	53,194	47,484	60,022	44,797	△12.8%	△11.7%				
경매두수(두)	469,935	395,253	401,591	28,259	25,894	33,139	25,782	△17.5%	△16.9%				
경락가격(원/kg)	16,855	18,941	17,710	17,779	18,148	19,612	19,713	10.3%	8.6%				
판매가격(원/kg)	13,150	15,263	12,108	11,358	11,750	12,993	12,866	12.5%	9.5%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5,148	5,809	5,404	5,302	5,332	5,655	5,401	6.7%	5.0%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총이자	2,374	2,902	2,919	2,970	3,100	3,248	3,255	9.4%	5.0%				
수	2,925	3,583	3,572	3,752	3,902	4,047	4,132	7.9%	5.9%				
불고기(1등급/kg)	37,397	45,755	46,219	46,757	41,946	43,274	44,877	△8.0%	△8.3%				
등심(1등급/kg)	69,924	78,683	79,663	77,813	79,081	79,531	80,765	2.2%	2.1%				

12.8%
17.3%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정성에 늘

“이번 호가 첫 구독인데 계간지인 게 아쉬울 정도로 좋은 정보가 많네요.”

한우자조금에서는 한우의 우수성, 한우요리 레시피, 여행·건강·재테크 등의 정보를 총 60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하는 계간지 <만들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 4회 발행되며, 2010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총 32회에 걸쳐 발간됐습니다.

<만들이>를 발간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독자엽서’를 받을 때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독자들이 ‘독자엽서’에 손글씨로 한자 한자 사연을 쓰고 우표까지 직접 붙여 보내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스티커나 드라이플라워 등으로 엽서를 예쁘게 꾸며서 혹은 편지지를 덧붙여 긴 사연을 보내주는 독자들의 그 정성에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독자들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이만큼 <만들이>를 정성으로 만들었는가?’ 반성도하게 됩니다.

<만들이>는 정말 정말 기다리는 책자입니다. 책이 오면 첫 장부터 스트레이트로 읽어버립니다.” “항상 알차고 재밌는 기사가 들어있는 <만들이>,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들의 마음에 뿌듯함도 느낍니다.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들이>를 읽으면서 한우 관련 레시피와 음식 문화 코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만들이>에 소개된 ‘버섯크림소스와 안심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폭풍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레시피를 한 번씩 그대로 따라 하는데요, 덕분에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우문화매거진 <만들이>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렇게 독자들이 <만들이>에 소개된 한우 요리를 따라해 봤다는 사연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독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한우 요리 레시피를 발굴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만들이>의 인기 코너 중 하나가 바로 ‘독자와 함께’입니다. “당장 서울까지 달려가서 한우 요리를 배우겠다” 등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히는 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우 요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습니다. 모든 독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큽니다.

“일본 온천 여행 정보가 유익하네요. 덕분에 흥미롭게 온천 여행을 계획하고 떠날 준비 중입니다.” “맞춤별 건강 기능 식품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을 밑줄 그어 가면 읽었습니다.”

<만들이>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획의 출발은 독자들입니다. ‘2018년 유행 패션과 뷰티를 소개해 주세요, 인테리어 소품을 소개해 주세요’ 등의 봄호 독자들의 의견은 여름호에 반영돼 좋은 반응도 얻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새로운 취미 소개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만들이>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잡지입니다. 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우문화매진 <만들이>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독자들의 응원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알 릴 광 장

이달의 한우 행사 소식입니다

www.hanwooboard.or.kr

제주 한우 직거래 할인 행사

행사기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행사일자 8월 22일~8월 25일

행事장소 제주 시민복지타운

주요내용 한우 할인 판매,
한우 무료 시식회 등

제6회 포천한우축제



주체지부 전국한우협회 포천시지부

행사일자 9월 1일~9월 2일

행事장소 포천공설운동장

주요내용 한우 무료 시식회 등

제5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산인한마음축제

행사기관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

행사일자 9월 7일~9월 9일

행事장소 작천정 공영주차장 일대

주요내용 한우 할인 판매,
한우 무료 시식회, 이벤트 등

제3회 울주산악영화제

행사기관 전국한우협회 서울산지부

행사일자 9월 7일~9월 9일

행事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앞

주요내용 한우 할인 판매,
한우 무료 시식회, 이벤트 등

TMR전산 프로그램교육 일정 안내

기수	일정	인원	교육장소
1기	9월 3일(월) 19:00~	45명	이론교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420) 전산실습: 농촌진흥청 정보화교육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2기	9월 4일(화) 09:00~	45명	

웹진으로 만나는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웹진으로 만나는 방법!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아래 4가지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네이버나 다음 포털 주소창에 한우자조금 웹진 주소(www.hanwoonews.com)를 입력하세요.

세 번째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세요. QR코드 스캔 방법은 네이버 채팅을 연 후 검색창 옆의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에서 소식지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한우자조금 소식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세요!

안드로이드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흄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 더보기」 클릭
- ③ 「... 더보기」에서 「+」 흄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아이폰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흄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 더보기」 클릭
- ③ 「...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 흄 화면 추가'를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푸짐한 선물이 팡팡!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옆의 방법에 따라 핸드폰에 웹진 <한우자조금> 아이콘을 생성한 뒤, 웹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한우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8년 8월 31일(금)까지

당첨자발표 2018년 9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 2명



한우 사육의 지침서
<한우야 놀자> 10명



두툼한 한우파티가 버거 속에
<한우불고기버거> 10명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우 비즈링 무료통화연결음

한우자조금에서 비즈링(컬러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사이트 www.hanwooboard.or.kr에 방문하여

메인화면 '알림·홍보' ▶ '홍보자료' ▶ '한우송 듣기' ▶ '비즈링 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차후 비즈링 해지는 고객센터 1544-320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번호·통신사 변경 시 비즈링이 자동 해지되오니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듣기 좋고
귀여운
비즈링~
친구·지인들이
좋아해요~



폭염특보 행동요령

40°C에 가까운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잘 알아두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작업자와 작업장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 일 최고 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 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특보 시 농작업 중단

- 가장 더운 낮 시간대(12시~17시)에는 반드시 작업 중단
※ 온열 질환 40%는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에 발생
- 고령농업인, 고혈압 · 심장병 ·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는 폭염 때 작업 금지

폭염 시 안전관리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

- 아이스팩,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해 작업자 보호
- 나 훌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함께 일하기
-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기(시간당 10분~15분)
- 시원한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많이 마시기(술이나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신장질환이 있는 고령 농업인은 의사와 상담 후 물 섭취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시간대(12시~17시) 작업 중지

하우스 · 축사 · 시설물에서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을 이용해 지속해서 환기
- 천장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 복사열 방지
- 비닐하우스에는 차광시설, 수막시설 등 설치

일상생활에서

- 자동차 등 밀폐된 공간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훌로 남겨두지 않기
- 고령자,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웃 등에 보호 요청
- 고령자는 시원한 마을회관 등에 모여서 폭염 피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무더위 쉼터(주민센터 · 시 · 군청에서 정보 제공) 활용

폭염 대비 농작업자 준비사항

- 실내 작업장은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과 출입문 개방
- 농작업 장비는 수시로 점검해 과열 방지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작업복 착용 주의

